제3회 정기총회 개최

▲ 지난 4월 3일 개최된 한국광산업진흥회 제 3회 정기총회 모습

한국광산업진흥회(회장 이기태)가 미국, 일본 등 해외 광산업관련 기관과의 교류 증대와 상호 네트워크 구축, 국제광산업전시회 및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으로 광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지난 4월 3일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제 3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 2대 진흥회 회장으로 삼성전자 이기태 사장을 선임하고 2002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21세기 핵심첨단산업인 광산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과 국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산업자원부, 광주광역시와 함께 국내 광산업 육성 발전을 이끌어 나갈 민간추진주체이다.

한국광산업진흥회는 광선진국인 미국(OIDA, SPIE), 일본(OITDA) 등 7개국 광관련협회 및 학회와 일본, 독일 광산업 집적화단지와의 활발한 교류로 국내 광산업 수준 향상에 견인차 역할을 하여 왔으며 제7차 광선진 6개국 협의회를 국내에 유치해 오는 9월 서울 코엑스에서 광관련 제품의 Market Trend 및 표준화 추진현황이라는 의제를 가지고 협의회를 개최하게 된다.

또한 지난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국제광산업전

▲ 김종수 회장에게 2대회장으로 선임된 이기태 회장이 공로패를 증정

시회를 개최하였으며 올해는 9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하여 광산업 관련 전시회와 국제광자기술학술발표회, 수출상담회, 중소기업애로 상담회 등을 가질 계획이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국내 광산업육성발전과 정착에 공헌한 국회산업자원위원회 박광태 위원장에게 감사패 증정과 그동안 한국광산업진흥회를 이끌어 온 김종수 초대 한국광산업진흥회장에게 공로패를 증정하고 한국광산업진흥회 2001년도 사업실적과 수입지출결산안, 이익잉여금 처리안, 김종수 회장의 사임으로 인한 제2대 회장과 궐원 임원 선임안, 2002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등의 안건을 다루었으며 총회후 이종민 고등광기술연구소장이 최근의 광기술동향을 강태구 전남대 경영대학 교수가 국제경영마인드와 마케팅전략에 대한 특별강연도 가졌다.

경영전략 조찬세미나 개최

한국광산업진흥회 (회장 이기태, www.kapid.org)는 지난 4월 17일 광주 신양파크호텔 1층 신양홀에서 광주·전남북 지역 회원사 최고경영자 60여명을 초청하여 경영전략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광산업진흥회에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서 개최된 OFC2002 전시회에 국내 광관련 59개 업체와 함께 참가하여 최근의 국제 광산업 시장과 기술 동향의 변화 추세를 파악하고 이를 광산업 관련 업체 최고경영자 등에게 전달하므로써 향후 경영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번 행사를 개최했다.

조찬세미나 연사로 초청된 국제적인 광관련 전문 컨설팅사인 오픈드림의 김정국 대표이사는 "한국광산업진흥회와 한국광기술원이 성공해야 진정한 광산업 육성·진흥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최근 광산업 육성 2단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이고 기술로드맵 사업과 기업중심의 광산업육성 전략"을 강조했다.

한국광산업진흥회는 금년 5월부터 지역별·분야별 전문 컨설팅팀을 구성하여 중소 벤처기업 위주인 국내 광관련 업체의 수요를 파악하여 맞춤식 컨설팅 지원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